

세대를 넘어선 생존 DNA : 구조적속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동인(drive)이다.
따라서 글로벌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 생존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동물에게도 이타성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쉽게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 중 하나일 것이다. 동물도 보호본능 이상의 이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예로 드는 것이 사막에 사는 미어캣(Meerkat)이다. 다람쥐와 닭은꼴을 하고 두 발로 서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모습이 마냥 귀여워 보여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되었다. 군집생활을 하는 미어캣은 독수리와 같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발견한 놈이 곳곳하게 선 채로 다른 동료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소리를 지른다. 이런 행위는 포식자에게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타적 행위로 비춰지는 것이다.

동물의 이타적 행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례는 ‘산양’이다. 한 떼의 산양이 초원지대를 이동할 때 늑대 같은 포식자를 경계하기 위하여 구름(계곡)을 지나 건너편 언덕에 오를 때까지 한 마리가 남아서 후방을 경계한다. 이런 후방경계 행위도 포식자에 대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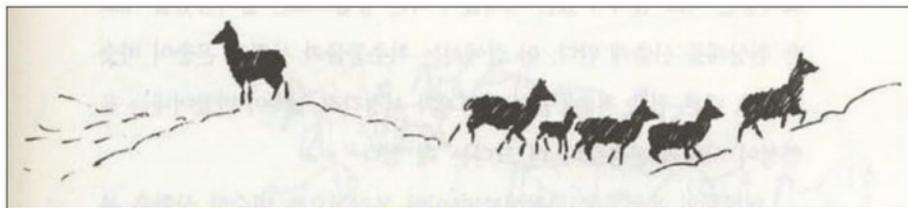
하지만, 저명한 인지생물학자 움베르토 마투라나는 이러한 동물의 행위가 이타적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집단의 생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세대를 넘어오면서 DNA에 고착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즉, 이성이나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희생 행위라기 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종의 본존을 위한 가장 자연스런 행위로 유전인자에 각인되어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구조적속”이라 명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생존 DNA가 존재할까? 무엇이 250만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종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만든 것일까? 그 답은 적응기계(Adaptive Mechanism)의 핵심에 있는 인간의 뛰어난 ‘학습능력’에 있다. 우리가 세대간 구조적속을 통해서 확보해낸 가장 효과적인 생존방법이었던 것이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경영환경은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 속도의 변화에 직면해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한 순간에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듯이,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가장 빠르게 학습해낸 조직만이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동인(drive)이다. 따라서 글로벌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 생존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이것은 희생을 전제로 한 선택(이타성)이 아닌, 조직의 생존을 위해 지극히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구조적속’의 과정인 것이다.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_ Charles Darwin



James Roh

Written by C.E.O 노상충 (James Roh)